

한양, 'LNG 동북아 허브 터미널 구축' 본격화

여수 모도에 20만㎥급 LNG 저장탱크 등 공사계획 승인 받아
2024년까지 1조3000억 투입 저장·공급·트레이딩 사업 완료



조감도

'전남 LNG 동북아 허브 터미널 구축'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조만간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여수 모도를 동북아 LNG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사업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새로운 일자리 및 연관 산업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업자인 (주)한양이 여수 모도에 87만4000㎡ 규모 전남 LNG 동북아 허브 터미널 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최근 완료하고, 산업부로부터 20만㎥급 LNG 저장탱크 및 LNG 터미널 포함 시설 전반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을 받았다.

전남도와 한양은 그동안 여수 모도에 LNG의 저장과 공급은 물론 트레이딩과

지 가능한 동북아 에너지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등을 함께 진행해 왔다. 한양은 지난 2019년 7월 LNG 저장탱크 4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9월 LNG저장탱크 상세설계에 착수한 바 있다.

한양은 오는 2024년까지 우선 1조3000억원을 투입해 20만㎥급 LNG 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설비, 최대 12만7000t 규모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조성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발전용, 산업용 수요처에 LNG를 공급하는 한편 LNG 병커링, 트레이딩, 수소산업, 방열이용장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전남 LNG 동북아 허브 터미널'은 자가 소비용이 아닌 국내 최초의 순수 상업용 LNG 터미널로, 향후 가스산업의 발전

및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펄텍, 인천, 삼척, 통영, 제주 등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5곳, 보령, 광양 등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2곳 등 기존 7곳의 LNG 터미널은 민간발전사들의 자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모도에 들어설 터미널은 LNG 저장 및 공급을 넘어 트레이딩이 가능한 동북아 에너지 거점으로 구축하는 사업

로 기존 발전사들 뿐 아니라 다양한 수요처들과 거래하는 개방형 민간 LNG 터미널로 운영한다.

전남도와 한양은 LNG 터미널이 활성화될 경우 동북아 LNG거래 축진은 물론 원료비 절감이 가능해 연료 직수입 시장 또는 동북아 LNG 거래소 설립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LNG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물론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관 사업 파급효과 등 지역경제 발전 효과도 기대된다. 여수산업단지 내 발전용, 산업용으로 이용됐던 석탄 연료를 청정연료인 LNG로 대체할 경우 광양만권의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남 LNG 동북아 허브 터미널' 사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 발전의 또다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충선 라운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정책 협약 체결

서갑원 순천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서갑원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예총)와 최근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예총과 함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문화예술의 공급자인 예술인들의 복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고 설명했다. 서 예비후보는 "순천이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공식 선정된 것과 더불어 동북아 평화체계 구축 및 한류의 세계화 중 심에 순천이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khh@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반드시 헌법 반영해야"

운영일 해남안도진도 예비후보



민생당 운영일 해남안도진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21대 국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드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헌법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장은 농업·농촌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식량안보와 생태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 국민의 먹거리 보장은 물론 전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농업 선진국 스위스는 1996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연방헌법에 담았고, 2017년 식량안보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왔다"고 소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역 마스크 구입 긴 행렬 3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에서 코레일유통이 공적 판매에 나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인가 3월내 통과 될까

한전 이사회, 자본조달 방안·교사 준공 방안 등 최종 승인

최근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한전공대 대 출원 방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개최 예정인 교육부 대학설립 심사위원회의 한전공대 법인 설립 인가 심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3차례나 심의가 연기된데다 심사위가 요구한 개교까지 자본조달 방안, 학교 건축물 조기 준공 방안 등과 관련한 모든 준비 서류를 갖췄기 때문이다.

3일 전남도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

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어 한전공대 학교법인 출원계획을 보고한 뒤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날 보고된 출원계획에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까지 연도별 한전의 출원 규모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한전의 출원금 총액이 3956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사회 보고를 거친 한전공대 설립 자본 조달 방안, 2021년 상반기까지 교사 등 학

교 설립에 필요한 건축물 준공 방안 등 지금까지 교육부 대학설립 심사위가 요구한 내용을 모두 서류 형태로 보완했다"며 "다음 심의에서는 무난하게 인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9월 30일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12월 20일 1차 심사, 올 1월 31일 2차 심사에서 인가가 보류됐다.

지난 2월 28일 예정됐던 3차 심사는 대학 설립을 위한 자본조달 계획 등 한전 측이 구비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해 연기

된 바 있다.

한전공대 법인설립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되면 향후 학교법인과 수개월 내 선임될 초대 총장 주도로 한전공대 설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한전공대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40만㎡부지에 들어서며, 2025년까지 대학 설립에 6210억원, 운영에 2079억원 등 모두 828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한전은 추산하고 있다.

학교 부지는 (주)부영이 무상제공하고, 전남도와 나주시가 개교년도부터 10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나현 전 광주시의원 제명 처분 정지 가처분 인용

광주시의회 나현(비례대표) 전 시의원 법원에 낸 제명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나 전 시의원의 복귀 여부 그리고 나 의원 후임으로 결정돼 비례직을 승계한 최미정 시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광주 고법 행정1부는 나 전 의원이 광주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제명결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가처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지방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신분·명예에 대해 심각한 불이익을 입는 등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유급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매달 내야 하는 돈 80만원을 자신의 보좌관이 대납토록 해 불의를 빚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1년 유예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상환유예 대상은 가공·유통사업을 위한 원자재 매입, 전복양식에 따른 종패 구입에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전남도내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다. 이번 전남도의 유예조치로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한 80여 농가가 융자금 80억원에 대한 상환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상환유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와 법인은 오는 27일까지 금융기관에 상환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전남도는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연리 1%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중장기 융자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